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성격, 목표, 내용(내용 체계, 영역별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 7차 교육과정(1997~2006): 성격

철학은 궁극적 관심사를 다루는 학문으로, 그 질문이나 해답에 있어서 지극히 포괄적이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특성이 있다.

철학적 문제는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이 가지는 성격을 밝히고, 그 정당화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인간 삶의 각 영역을 이해하는 데 종사하는 철학의 여러 분야들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사회 철학, 종교 철학, 과학 철학, 인식론 등이다.

또, 인간 삶의 중요 영역이 가지는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탐구는 그러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통상적인 행동 유형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는 이론적인 차원을 넘여,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실천적인 잠재력을 지닐 수가 있다.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7차 교육과정(1997~2006): 성격

그리고 철학자들은 단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논변으로써 옹호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는 철학자들이 그들의 해답을 뒷받침할 정당 근거를 생각해 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철학은 특정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값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 특히, 교양 철학 과목은 이점에 유의하여 지나치게 고답적이거나 난잡한 내용은 지양하고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데 강조점을 둔다.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7차 교육과정(1997~2006): 목표

인간적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전체적인 조망 능력을 배양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

- 1) 인간적 삶의 다양한 측면이 가지는 의미를 그 정당 근거와 관련해서 이해한다.
- 2)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되 대안을 구상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체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게끔 전체적인 조망 능력을 배양한다.
- 4)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통해 현실이 충실하면서도 더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
- 5) 합리적 논변과 토론의 함양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7차 교육과정(1997~2006):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 입문, 철학 방법론)	• 나는 누구이며 왜 철학을 하나 • 삶의 의미와 철학함 • 사고 방식으로서의 철학함과 논리 • 철학적으로 토론하고 글쓰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론 및 진리론, 과학 철학)	•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 아는 것과 믿는 것 • 진리란 무엇인가 • 과학의 특성과 한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형이상학, 종교 철학)	• 우주의 시작과 종말 • 생성과 소멸의 비밀 • 생명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 • 초월과 신앙의 의미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7차 교육과정(1997~2006)

영역	내용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학, 인간론)	• 원칙이나 결과냐 • 선택이나 운명이나 • 인간 본성론, 유전과 환경 • 몸과 마음은 하나인가 둘인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정치 철학, 사회 철학)	• 내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 민주주의와 절차의 중요성 • 자유와 평등은 조정될 수 있는가 • 역사에 법칙이 있는가
자연, 문화, 아름다움 (자연 철학, 문화 및 예술 철학)	• 자연, 정복의 대상인가 •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 윤리 • 문화 및 예술의 본성 • 문학 속의 철학, 철학 속의 문학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7차 교육과정(1997~2006)

나. 영역별 내용

(1) 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 입문, 철학 방법론)

나와 철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철학함을 통하여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1)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기 유발적 입문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2) 어린이 철학 예화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모두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한다.
- 3) 완성된 철학 체계가 아니라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4) 철학의 방법은 분과 과학과는 달리 발견이 아니라 논변임을 이해한다.
- 5) 논변은 논리적으로 근거 있는 주장인 까닭에, 논변을 위해서는 논리적 기술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2007 개정 교육과정: 생활과 철학

고등학생으로서 생각해 볼만한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인 글쓰기와 토론 등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 1) 자기와 동료, 그리고 주변 사회생활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삶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여 정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2)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다양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안목을 기른다.
- 3)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 의견과 지식, 정보를 종합하여 문제 상황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초월하는 고차적 대안을 제시한다.
- 5) 문제와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논증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고, 정식화된 논술로 표현하며, 토론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철학적 표현 능력을 기른다.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2007 개정 교육과정: 생활과 철학

영역	내용
철학의 본질과 성격	철학의 성격 / 철학의 목표 / 철학적 사고 철학 교육 / 철학과 일상생활
언어·예체능교과 관련 문제	언어와 사고 / 문학과 현실 미적 가치 / 예술의 본질
사회탐구교과 관련 문제	인간의 본성 / 개인과 사회 / 자유와 평등 경제적 성장과 분배 /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화의 문제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2007 개정 교육과정: 생활과 철학

영역	내용
수리 · 과학탐구교과 관련 문제	수학적 사고 / 과학적 세계관 과학과 기술 / 환경결정론 역사와 지리
이상과 현실	도덕적 가치 / 삶과 죽음 자아의 문제 / 타인과의 관계 학업과 학교생활 / 취업과 진로

2. 철학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2007 개정 교육과정: 생활과 철학

나. 영역별 내용

(1) 철학의 본질과 성격

- ① 철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 ②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 ③ 철학적인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 ④ 이성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사고를 구별한다.
- ⑤ 철학의 다양한 분과들과 제반 학문과의 동질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 ⑥ 철학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 ⑦ 일상생활에서 철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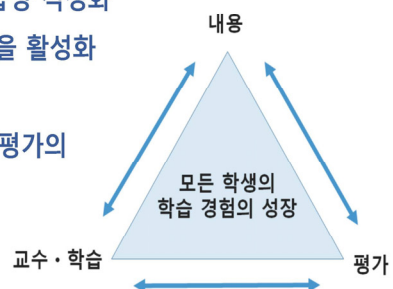
2015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인재상의 관계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소양 함양과 선택학습 강화
- 나. 핵심개념 중심의 교육내용 재구조화 및 학습량 적정화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강화
- 마.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강화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철학교과 교육과정

목표

고등학교 철학 교육은 고등학생이 청소년으로서 자기 삶을 성찰하고 학생으로서 교과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삶과 교과의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파악하고 탐구하도록 한다. 또한 논증과 토론 등의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합당한 근거와 보편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정립할 수 있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철학교과 교육과정

이러한 총괄 목표 아래 세부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지식과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정립하고, 그 쟁점들이 실제 삶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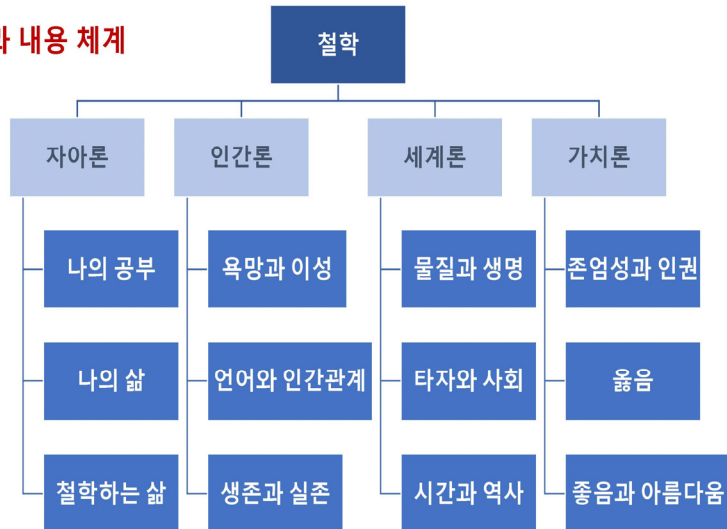
둘째, 쟁점에 대한 비판적·창의적 탐구 능력을 기른다. 이런 탐구 능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쟁점의 내용과 쟁점과 관련된 주장을 이해한다.
- 이해된 내용을 '주장-근거'의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 쟁점을 그와 관련된 사태에 맞게 맥락화한다.
-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 대안을 재검토한다.
- 위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하여 정리한다.

셋째, 논증적으로 정리된 결과를 자신의 의견으로 표명하고 그 의견을 논술로 기술하며 타인들과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체득한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철학교과 교육과정

철학교과 내용 체계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철학교과 교육과정

1. 자아론

- 일반화된 지식과 성취기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
- 성취기준을 근거로 학생 평가가 가능한가?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
나의 공부	• 나에게 학교 공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배움과 사귀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 배움이 인간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인가?	[12철학01-01] '고등학생이면서 청소년인 나의 일상적 삶과 공부의 현실에서 철학적 문제들을 발견함으로써 근본적 문제와 마주하는 경험을 체득한다.
나의 삶	• 지금의 나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었는가? •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가?	[12철학01-02]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조건 속에서 청소년으로서 '나의 삶'의 방해 조건과 자유의 조건을 성찰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될 방안을 모색해 본다.
철학하는 삶	• 철학은 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 자유로운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 삶의 한계상황이란 무엇인가?	[12철학01-03] 삶의 한계 상황에서 '철학함'을 통해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통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철학교과 교육과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의 일반화된 지식과 성취기준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윤리학은 이론윤리와 실천윤리로 구분되며 이론윤리가 도덕원리의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라면 실천윤리는 도덕 원리를 토대로 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1. 현대 생활과 실천윤리 :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①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 ② 실천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현대의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서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 윤리 및 서양의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가 있으며 오늘날 새로운 접근법으로 도덕과학적 접근이 있다.	2.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 동서양의 윤리를 통해 현대의 윤리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① 동양 윤리의 접근 ② 서양 윤리의 접근

[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철학교과 교육과정

2. 인간론

· 성취기준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
욕망과 이성	- 인간의 존재를 몸이나 마음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가? -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적절한가? - 이성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2철학02-01] 사람됨을 구성하는 몸의 기반 위에서 욕망과 이성 각각의 능력과 둘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한다.
언어와 인간 관계	-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 타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 어떤 경우에 언어가 폭력이 될 수 있는가?	[12철학02-02] 자기의 사고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한다.
생존과 실존	- 혼자 사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 타인은 내 삶의 방해물인가, 자기실현의 조건인가? - 죽음은 삶의 끝인가?	[12철학02-03] 내가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하나의 자아로 실존하고, 심지어 죽어서도 존재함이 지속되는 과정임을 탐색한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철학교과 교육과정

3. 세계론

• 성취기준이 명료하지 않음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
물질과 생명	- 우리는 왜 물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생명은 물질 현상인가 비물질 현상인가? '나'는 물질인가?	[12철학03-01] 우주, 자연, 생명에 이르는 물질의 다양한 존립 방식과 비물질적 존재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자연과학적 탐구의 기초를 이해한다.
타자와 사회	-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롭지 않은가? - 사회적 규범은 왜 필요한가? -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사회의 조건은 무엇일까?	[12철학03-02] 타인과의 다양한 공존 관계 속에서 규범의 필요성과 자유의 가능성, 그리고 삶의 한계를 탐구한다.
시간과 역사	- 과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민족은 무엇이고,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12철학03-03]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역사의 규정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이해와 자기실현의 기반이 됨을 성찰한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철학교과

• 성취기준이 극히 제한 적인 것만 제시함
• 성취기준이 명료하지 않음

4. 가치론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
존엄성과 인권	- 특별한 역할이나 소임이 없는 인간이라도 왜 살려야 하는가? - 인권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신념이나 관습은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가?	[12철학04-01] 한 인간의 사회적 효용성이나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인권을 누려야 하는 근거를 탐색하고 체득한다.
옳음	- 옳지 않은 규칙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태인가? '정의 없는 평화'나 '평화 없는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12철학04-02] 인간의 삶이 살아가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왜 올바른 규범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고찰하면서 인간의 만남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좋은 삶과 아름다움	- 좋은 삶은 무엇인가? - 우리는 왜 아름답지 않은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더 좋아하는가? -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철학04-03] 좋은 삶이란 무엇이며, 좋은 삶을 만드는 아름다움의 근원과 그에 대한 체험이 어떻게 행복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한다.

5. 새로운 철학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

❖ 국제 바칼로레아(IB)의 철학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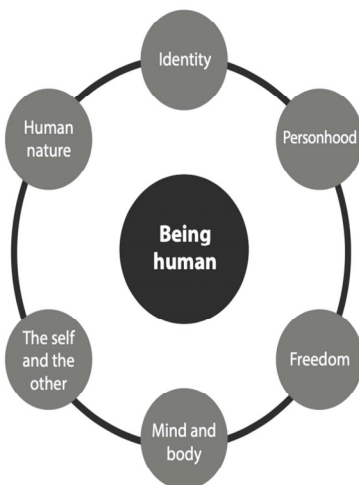
- **Core theme**

The core theme “**Being human**” is compulsory for all students.

- **Optional themes**

1. Aesthetics
2. Epistemology
3. Ethics
4. Philosophy and contemporary society
5. Philosophy of religion
6. Philosophy of science
7. Political philosophy
8. Non-Western traditions and perspectives

5. 새로운 철학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



Core theme: Being human

1.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2. Is there such a thing as the self?
3. Can we really ever know the other?
4. Is how we interact with others what makes us human?
5. Has what it means to be human been changed/shaped by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6. What can discoveries in neuroscience tell us about what it is to be human?

5. 새로운 철학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

Core theme: Being human

핵심 개념	학습 주제	토론을 위한 질문
인간 본성	• 개성과 보편성 • 본성 vs. 육성 논쟁 • 행동주의와 같은 과학적 관점 • 감성과 이성	• 인간은 개별 문화와 무관한 공통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은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입니까? • 인간의 본성: 고정 또는 변화 가능성?
자유	• 자유의지와 결정론 • 사회적 조건 • 실존적 불안	•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은 양립 할 수 있나요? • 실존주의자들은 왜 자유를 실존적 불안의 근원으로 보았는가?

5. 새로운 철학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

핵심개념	학습 주제	토론을 위한 질문
마음과 몸	• 마음과 몸의 문제 •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 의식(consciousness)	• 만약 마음이 있다면, 마음과 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 최근 신경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체성	• 개인 정체성 • 시간에 따른 정체성 • 사회적 및 문화적 정체성	• 나는 누구입니까? • 내가 10년 전과 같은 사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는 정체성을 어느 정도 형성합니까?
인격	• 자의식 • Agency • 책임과 신뢰성(authenticity)	•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동물이나 기계를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 도덕적 책임이 인간이라는 특징을 정의하는 것입니까?

5. 새로운 철학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

❖ 국제 바칼로레아(IB)의 'Theory of Knowledge' 교육과정

Part 1 : Knowers and Knowing 1. The problem of knowledge 2. The nature of knowledge 3. Personal and shared knowledge Part 2 : Ways of Knowing 4. Language 5. Sense perception 6. Reason 7. The emotions 8. Intuition 9. Imagination 10. Memory 11. Faith	Part 3 : Areas of Knowledge 12. Mathematics 13. The natural sciences 14. The human sciences 15. History 16. The arts 17. Ethics 18. Religion Part 4 The Big Picture 19. Cultural perspectives on knowledge 20. Truth and wisdom Part 5 Assessment 21. The TOK essay 22. The TOK presentation
--	--

5. 새로운 철학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

-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의 성격과 교과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연구 성과를 근거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다.
- 교육과정 설계의 원리, 방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교과 교육과정의 철학 결여, 교과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교육과정 설계를 등치시키는 인식상의 오류 등이 극복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왔다.
- 그러한 현상은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조급성, 교육과정 일반 설계자들의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교과 교육과정에서 확인되는 특정 학문 분야의 지식에 편중된 영역 분파주의 등에 기인한다.

출처: 김국현 외, '교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12", 2010, pp. 8~9.

5. 새로운 철학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

- 교육과정은 목적, 가치, 지식의 구조 등의 철학적 준거, 사회, 이념, 과학기술 등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려, 문화적 제약, 발달, 학습, 교수, 동기 등의 심리학적 이론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그리고 설계의 핵심은 학문지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구성되는 교과 지식이다. 교과 교육과정이 학습자, 사회, 교과교육학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과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요소들이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고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져온 점을 고려하여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교과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토대에 기반을 둔 충실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창의성과 인성 함 양을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출처: 김국현 외, '교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12", 2010, pp. 8~9.

끝

철학 교과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지혜인

중등교 철학교사, 이화여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요약

윤상철 선생님의 「고등학교 철학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의 정의 하에 철학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철학 교과 교육과정의 특징, 그리고 철학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발표자께서 교과 교육의 현상학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과정에 앞서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철학 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 및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핵심 연구 문제를 도출해주신 점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발표자께서는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각각의 목표와 성격 및 내용 요목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논의의 초점을 국가 단위 교육과정으로 좁힐 수 있었으며, 교육과정이라는 일련의 문서를 꼼꼼하게 독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철학 교과의 성취기준을 살펴봄에 있어서 각 성취기준을 구성하고 있는 행동 동사가 과연 현실적 맥락에서 철학 교과 수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 및 메시지는 명확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새로운 철학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해주셨는데, 이를 통해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IB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또는 모방하자는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학문의 본래 목적과 철학 교과의 지식 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근거로 좀 더 면밀하게 교육과정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말씀대로 앞으로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뀔 것이며, 사회 변화 속도와 양상이 매우 빠른 만큼 교육과정

에서 요구하게 될 핵심 역량 등이 계속해서 재구조화되거나 소위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 교과 교육과정 역시 이를 역동적으로 반영하고 다시금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철학함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논평

발표자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철학 교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이 방향성에 대한 탐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커다란 질문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를 5년 앞둔 지금, 교양 교과로서 철학 교과 앞에는 많은 질문과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컨대 ‘철학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나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은 철학 교과에 어떠한 미래를 가져다줄 것인가?’,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교양 교과군에 철학 교과가 속해 있는 것은 어떠한 장단점을 보여주고 있는가?’, ‘(철학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철학을 가르치게 된다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비전공자가 철학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아가 철학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학 전공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앞으로의 철학 교육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내용(컨텐츠)은 무엇이며, 이 내용 체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되어야 하는가?’ 등 앞으로 함께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은 것이 현상황입니다.

현재 상황까지 살펴본 이 시점에서 제가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즉 한국사회의 철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바로 용기와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점검하고 파고드는 자세와 습관이 키워진다는 것인데, 문제 점검과 분석에 많은 에너지를 쓴 나머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내어 발 딛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학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과정에 철학 교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마련해놓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국가행정기관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과정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철학교육학회뿐만 아니라 철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과 목소리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 소모임을 조직하여 연구, 저술, 강연, 연수, 영상 자료 제작 활동 등 철학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철학과 철학교육

이지
이화여대

1. 문제상황

초중등철학교육에서 동양철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우선 교과 내용 중에 동양철학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동시에 동양철학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철학 교과에서 동양철학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또한 어디에 놓여 있는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초중등교육과정의 거의 모든 교과목 내용과 구성에는 대학의 연구상황과 현실이 반영되어 있고, 대학에서 형성된 관점이 시차를 두고 초중등과정으로 전이되어 간다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짐작할 만한 일이다.

동양철학이 철학계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은 근대학문체계가 도입되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일본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으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당시 제국주의적 확장을 거듭하고 있던 자본주의 체제에 편승하게 되었고, 서구근대학문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중국을 통해 이미 서구학문을 접하고 일정한 수용관이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이른바 ‘서세동점기(西勢東漸期)’에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표방한 일본의 유럽관에 굴절된 서구근대학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철학의 시작도 이 시기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에서 ‘철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이다. 이 책에서는 서양의 종교, 학문, 기술, 제도 등은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13편에서 ‘철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 학문은 지혜를 사랑하여 이치에 통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심원한 근본과 광박한 효용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세울 수 없다. 사람의 언행과 윤리, 그리고 천만 가지 일의 움직임과 그침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다.”¹⁾ 이후 ‘철학’의 용례는 점차 확대되어 간다. 유길준이 소개한 ‘철학’은 ‘philosophy’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서구유럽의 학문으로서 ‘philosophy’를 처음 접하였을 때부

터 ‘철학’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유불선(儒佛仙)의 지적전통을 지니고 있던 동아시아에서는 ‘philosophy’를 그 전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다.²⁾ 그리고 ‘이학(理學)’이라거나 ‘격물학(格物學)’이라는 용어로 ‘philosophy’를 지칭하였다. 그런데 메이지시기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용어와 이해에 입각한 ‘이학’이나 ‘격물학’이라는 용어가 ‘philosophy’를 지칭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게 된다. 이 시기 일본 지식인들에게 서양은 근대 서양에 집중되어 있다. ‘philosophy’ 역시 근대의 것을 정수로 여겼고, 그 핵심을 이성과 과학으로 파악했다. 서구의 ‘philosophy’에서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특성을 간파하고, 이것이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의 주요 동인이라고 간주하면서 더 이상 ‘이학’이나 ‘격물학’으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과학적 인식을 결여한 ‘이학’과 ‘격물학’에서는 서구 ‘philosophy’가 이루어낸 업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대학문으로 포괄할 수 없으며 다만 전통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동양의 지적전통과 서양의 ‘philosophy’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 ‘philosophy’를 적절히 명명할 새로운 번역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고안된 번역어가 ‘철학(哲學)’이다.³⁾

메이지 지식인들이 ‘철학’이라는 번역어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양과 서양의 지적 전통이 이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된 양자의 특성은 각각 그 전통이 함축하는 것보다 축소되는 방향에서 강화되어 갔다. 일반적으로 서양은 합리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외향성을 지녔다고 보는 반면, 동양은 내면적인 삶과 직관적 사고의 경향을 지닌 내향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관점은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진다. 그리고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후 미군정, 전쟁과 분단,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동양의 지적 전통은 ‘동양철학’이라 명명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박제된 학문으로 취급되는 반면, 서양철학은 과학적 확실성을 기반으로 현재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는 서양철학에게도 동양철학에게도 극복해야 하는 바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양에서 수입된 개념들로 한국적 상황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것이 전통학문의 존립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궁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위기감은 특히 생태론적 관심과 함께 양자의 보완과 협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동양철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해 보인다.

1)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1890년 고종에게 먼저 소개한 후 1895년 일본에서 출간하였다.

2) 이정직, 전병훈, 이인재 등의 저술에 이러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다.

3) 니시 아마네(1829~1897)

철학연구자들 사이에 이러한 의식이 확산되고 연구주제가 세분화되어 업적이 누적되는 노력과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사회와 학계의 상황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초중등과정으로 전이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중등과정이 대학과 학계의 연구업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객체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면 철학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것이다.

II.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동양철학 교육

초중등 교육현장과 앞서 제기한 문제상황을 공유하기에 앞서 초중등교육에서 동양철학 교육의 현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철학’ 교과서에서 동양철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생활과 철학》(2010. 미래엔. 대표저자 손동현), 2014년 고등학교 《철학》(2009 개정 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 2016년 고등학교 《철학》(2015 개정교육과정, 천재교육)이다.

〈찾아보기〉를 기준으로 《생활과 철학》에서 다룬 서양인은 60인, 동양인은 3인이다. 3인의 동양인은 김소월, 신윤복, 이중섭으로 모두 “Ⅲ. 아름다움의 세계와 상상의 진실”에 한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2014년 고등학교 《철학》에는 서양인 52인, 동양인 6인이다. 6인은 공자, 김구, 묵가, 승조, 이덕무, 함석헌로 중국 선진시대 철학자 2인(공자, 묵가), 불교철학자 1인(승조), 한국실학자 1인(이덕무), 한국현대사상가 1인(함석헌), 한국의 역사적 인물 1인(김구)으로 분류해볼 수 있겠다. 《생활과 철학》과 《철학》에서 서양인과 동양인의 비율이 각각 60:3과 52:6으로, 《철학》에서 동양인 비율이 좀 더 높지만 유의미한 차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생활과 철학》에서 다룬 동양인은 모두 한국 작가들로서 미학을 다루는 장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에 비해 《철학》에서 다룬 동양인은 대부분 중국과 한국의 철학자들이라는 점에서 동양철학의 비중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2016년 고등학교 《철학》은 지도서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지도서에는 〈찾아보기〉가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단원마다 수록된 〈지도계획〉에 언급된 인물과 본문에 인용된 인물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서양(철)학자와 동양(철)학자의 비율이 9:2 정도로 나타난다. 앞의 두 권의 책에 비해 동양(철)학자의 인용비율이 2배 정도 많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비중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인용된 원문과 철학자가 대부분의 단원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단원별 편차가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집필자를 고려해본다면 동양철학

전공자가 맡은 단원에서 상대적으로 인용수가 집중된 것이라 추정된다.

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가추이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양 철학과 철학자에 대한 소개는 다소간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그렇지만 양적 증가와 기계적인 균형이 이루어진다 하여 철학교육에서 동양철학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이 이분화되는 과정에서 서양철학은 고대와 중세의 철학적 자원은 주목받지 못하고 근대의 과학적 인식이 서양철학의 특징으로 부상하면서 서양철학은 전체로 보았을 때 축소되거나 개념의 국지적 과잉이 일어났다. 동양철학 역시 전통철학으로 제한되면서 현재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서양철학이 확실성의 근원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적 상황을 자주적으로 다루는 데에 있어서 모종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료로서 동양철학을 소환하였다. 동양철학이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가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현재, 그리고 한국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서양철학의 보완재 역할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동양철학의 원전을 소개하고 동양철학자들의 사상과 이론을 설명하는 지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양철학 중심의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⁴⁾

그렇다면 동양철학은 현재성을 갖지 못하는 전통철학에 머물러 있어서 서양철학의 보완재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기에 답하기에 앞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동양철학’이라 칭했을 때 이를 하나의 분화되지 않은 덩어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양철학에도 인간과 우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다양한 세계관이 혼재한다. 고대부터 이어오는 동아시아지역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 지적 탐구의 산물들을 하나의 개념적 실체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세계관과 접근방식들에서 현재적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별도의 논증이 필요하겠지만, 동서양철학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서 양자가 마찬가지로 극복해야 하는 것은 축소 혹은 과잉 왜곡되어 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교육에서 동양철학의 확대 문제도 각 철학적 요소에서 현재적 의미를 해석하고 개념을 창조해내는 데에 협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하다. 2020년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각국의 양태가 동일하지 않다. 정부의 대응방침도 다르고, 정부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에 관한 것이다.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부의 개인에 대한 규제에 대해 개인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저항하는

4) 원문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거나 고대철학의 내용을 현대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지금의 현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더라도 그것을 간섭과 개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나라보다 강하다. 서구에서 개인의 개념은 자유 관념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획득되었다는 점에서 설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동아시아 전통에서 개인은 공동체 속의 개인이다. 공동체적 유대 관념은 고대의 천명(天命)사상으로까지 소급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주의 백성에 대한 관계, 백성의 군주에 대한 관계 역시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현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개념과 그 개념의 보편적 가치, 미래적 전망 등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그에 대한 대응 관계들을 배제한 채 개념을 운위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III. 동양철학 교육을 위한 제언

초중등 철학교육에서 동양철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대’의 의미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의할 바가 많다.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교과서 지면상의 양적증가가 아니라 동양적 사유의 다양한 세계관을 설명하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의 해석이 전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개념적 자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4세기 중국 원나라 시대에 유럽의 상인이 중국에 들어가 수개월 머물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그들이 중국인들을 보고 가장 놀랐던 것이 신(神)에 대한 관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이라는 점이었다고 한다.⁵⁾ 윤리의 근원이 초월적 존재인 신에게 있다고 하는 기존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동양적 윤리의식은 천(天)관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다. 천은 신에 대응하는 개념일 수 있지만, 초월적이지 않고 형이하의 세계를 관통하는 내재적 사유를 이룬다. 내재적 사유는 현대윤리학을 다룸에 있어서도 소통 가능한 개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양철학적 자원은 서양철학의 보완재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 해석을 거쳐서 지금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는 사유틀로서 접근해가야 할 것이다.

초중등 철학교육에서 동양철학을 이와 같이 다룰 수 있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동양철학을 전공 또는 학습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의 철학교육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에서 우선 동서철학의 균형 있는 학습의

5) J.J. 클라크 지음, 장세룡 옮김,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우물이있는집, 2004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미래의 철학교사들이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유연한 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바이다. 만일 대학에서 동서철학을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훈련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면 교사연수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교사연수를 체계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 집필 단계에 동양철학 전공자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일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동양철학은 분화되지 않은 하나의 총체가 아니다. 동양철학 내부에도 양립하기 어려운 세계관들이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철학의 대표자가 아니라 다양한 동양철학의 전공자들이 협업해야 할 것이다.

IV. 나오며

초중등 철학교육에서 동양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현대적 의미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에서 연구역량이 강화되어서 공급되어야 할 일이지만, 초중등 과정의 역량 있는 교사들도 협력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려면 먼저 동양철학적 사유 훈련을 받은 교사의 수가 보충되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훈련과 연구 업적 제공, 그리고 현직교사들과의 협업과 교사연수 활용, 그리고 양질의 교과서 생산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동양적 사유를 전통의 영역에 가둬두지 말고 현대의 철학적 개념을 창조하는 논의의 장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꼭 한 사람 만큼의 차이 -고 소흥렬 교수님 1주기 추모를 겸하며-

박정원

철학박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동양철학과 철학교육」의 발표문에는 결코 훌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들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근대 지식인들에 의해 ‘philosophy’가 ‘철학’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의 지적 전통이 부당하게 축소되고 왜곡되었다는 점, 그리고 『생활과 철학(2010, 대표저자 손동현)』을 위시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양철학의 내용이 매우 적게 다뤄지거나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동양철학에 대한 관심이 겨우 서양철학의 보완재 역할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세 가지 사실 중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 두 번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철학교육과 관련하여 인식의 전환과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양철학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자는 것, 서양적 개인관과 사회관에 치우쳐서 현대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거나 평가하지 말자는 것, 동서양 철학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갖고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협업하자는 것 등입니다. 결국 발표자가 강조하는 것은 의외로 간결합니다. 철학교육에서 동양철학이 ‘확대’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동양적 사유의 다양한 세계관을 설명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금 오늘의 문제를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발표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철학교육의 스승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고 소흥렬 교수님입니다.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재직하시며 주로 서양철학과 논리학, 사회철학을 가르치셨고 지금 이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고 소흥렬 교수님이 지난해인 2019년 말에 세상을 떠나신 날, 빈소에서 오랜만에 철학과 선후배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소흥렬 교수님의 저서 『논리와 사고』를 기초로 서양논리를 가르치곤 했던 저는 소흥렬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야 비로소 만년의 저술들을 지난 여름방학에 찬찬히 읽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소흥렬 교수님의 논리학의 철학 실험과 탐구정신은 단지 서양의 논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 교수님은 오히려 서양 논리를 넘어서는 논리, 철학과 종교, 정치, 그리고 교육을 가로지르는 삶의 문제들을 탐구하며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셨기에 서양철학이나 동양철학의 상호 진입 장벽들--이 장벽들은 단지 영어나 한문의 문제 이상으로 오래된 사고방식과 문화의 산물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은 그 중 하나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양의 것이라면 뭐든지 표준으로 삼고 싶어 하는 뿌리깊은 습성이 문제일 것입니다--속에서 소 교수님과 같은 학문 정신, 철학적 태도는 오늘날 진정성 있는 철학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울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흥렬 교수님의 만년 저술 중의 하나인 『불심초』는 짙막한 에피소드형 철학교육소설 형식으로 쓰인 글입니다. 이 에피소드들에는 철학도, 철학교사, 철학교수 뿐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직업군의 주인공들이 삶의 궤적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과 인간관계들, 여러 가지 난관들과 극복과정 등이 은유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철저히 서양철학적 논리에 충실하고자 했던 소 교수님 자신이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장벽들을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당사자적 자세’로, ‘스스로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쉽고 평이하면서도,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삶 속의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서양철학과 동양철학, 더 구체적으로는, 서양철학으로부터 동양철학으로의 사유의 발전과정이 흥미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동양철학에 대한 배움을 조금 경험한 이후에야 서양의 종교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고 넓어진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서양철학적 훈련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동양철학의 교육적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흥렬 교수님은 거대 담론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당사자적 태도로 다룸으로써, 그 영향력과 파장이 단지 꼭 한 사람 만큼의 차이 정도에서 머물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꼭 한 사람 만큼의 차이’는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가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자라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태도와 사고방식, 문화와 뿌리 깊은 신념 등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파장이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꼭 한 사람 만큼의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알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했을, 우리의 고유한 사상적 전통의 젖줄을 배우게 되고, 누군가는 그런 실마리들을 키우고 드높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더 발전시켜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기초로 발표자 뿐 아니라 동서양의